

KCB 갤러리 - 나누고 싶은 모습들



• 성탄 주일 세례식



• ECC 찬양과 기도의 밤



• 마리아 여선교회 바자



• 제직 임직 예배



• 보스톤 한국학교 구정잔치



• 청년 2부 설날 윷놀이



• 청년 1부 바자회



• ECC 건축 현황 (Holden St. 쪽)

보스톤 한인 교회 소식지 2월호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Vol. 39 No.1
2009. 2. 8



사랑의 마음 희망의 말

한울타리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T: 617-739-2663
F: 617-739-1366
www.kcboston.org
담임목사: 이영길



신년 주일 예배

대망의 2009년 새해를 맞아 첫 주일(1월 4일)에 신년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년 메세지로는 사사기 11장 본문 말씀으로 “최고의 해”란 제목의 설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영길 담임목사님께서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삶과 아울러, 우리 교회가 올해 최고의 해를 맞이하기를 소원하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 최고의 해는 교육관이 완성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을 찾아갈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소외되고 버려졌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합니다. 아니 깜짝 놀랍니다. 최고의 해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을 올해 우리 함께 꿈꾸십시오. 전 교인이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을 찾아가는 장면을 꿈꾸십시오. 전 교인이 오늘의 입다를 만나러 가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세상적인 꿈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꿈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1부 예배후에는 마리아 여선교회가 마련한 떡만두국으로 따뜻한 친교의 시간을 가졌고, 2부 예배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찬양대원들의 아름다운 신년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배후에는 모든 교인들이 서로 “최고의 해가 되세요” 하며 축복의 인사들을 나누었습니다.

제직 임직 예배

2월 1일(주일) 제직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로 23명의 서리집사님들이 임직받으셨고, 5명의 안수집사님과 3명의 장로님께서 재임직 받으셨습니다.

임직 받으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올해는 집사회에서 신임 서리집사님들께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빨간 장미꽃 한송이씩을 준비하여 선사하였습니다.



2월호차레

- ☞ 신년주일예배
- ☞ 제직임직예배
- ☞ 담임목사 메세지
- ☞ 공동의회 및 당회소식
- ☞ 교인위원회
- ☞ 해외선교위원회
- ☞ 모금위원회
- ☞ 집사회
- ☞ 신년기도
- ☞ 여선교회
- ☞ 청년1/2부
- ☞ 중고등부
- ☞ 애바라기
- ☞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 ☞ 고 김갑성 장로님의 명복을...
- ☞ 교우동맹
- ☞ 유아세례 간증문
- ☞ KBC갤러리